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1호 [루게 제24614호] 주체103(2014)년 7월 20일 (일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리사회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위해 그동안 훈련을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고 하시면서 체육인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승고한 체육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경기

김정은동지께서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룡해동지, 김양진동지와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현영철동지를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검열경기에는 국가종합팀과 제비팀이 참가하였다.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환호를 터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 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전체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경기에서는 지난 시기 국제국내경기들을 통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우수한 선수들과

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겨레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들의 정치적통락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준 두 팀 선수들에게 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높은 축구기술과 정신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과시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하여 우리 체육인들이 훈련에 더 큰 박차를 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력사의 땅 유평이여 천만년 길이 전하라!

##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1950년 10월의 잊지 못할 그날을 더듬어(1)

잠시 자리를 뜨시었는가, 창조자를 바른 살문을 열려고 밤을 놓으신 듯 송수화는 가뭄에 얼었다.

열린 집모퉁이를 돌아서면 사색에 잠겨 산기슭을 건너시던 발걸음소리도 들리어올...

방안에도 마당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체기가 스며있는 60여년전의 농가, 조국땅 북부산골 한켠의 추녀앉은 집안에 우리는 서있다.

흙벽에 노끈을 깬 방안에 자그마한 앉은뱅이 한개, 그 책상우연 초연내가 풍기는듯 한 균용전환기, 열방엔 그날날 어느 농촌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투박한 등근 방상...

한 나라의 명도자께서, 한 나라 군대의 최고사령관께서 계시던 곳이라고 하기엔 집도 책상도 한창의 사자리마저 너무나 수수하고 소박하다.

그래서 더더욱 어둡고 낯선가, 바로 이 집, 이 방에서 전회의 가장 준엄한 시기 나라와 민족을 생사의 위기에서 구원한 기적이 마려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쇠를 깨뜨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반제대전의 위대한 승리의 려명이 밝아왔다고 믿어온다!

하지만 사실이다. 엄밀한 사실이기 애 충격은 것처럼 크고 눈물이 앞을 흐리는 것이다.

백두의 설한봉을 헤치시며 나라를 찾기 위해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전회의 나날에는 또 어떠한 로고를 겪으시며 조국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해주시셨는가를 려력히 보여주고있는 유평의 옛 농가, 말하며 유평이여, 이 세상 그 어디에 이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려사의 집이 또 있는가!

친추만대에 전하라. 전회의 그 준엄한 10월 우리 수령님께서 여기에 어떤 자욱을 남기셨는가를!

\* \* \*  
한줄기 가을, 우동불자리 하나에도

절세위인의 발자취 어리고 전회의 만단사연이 비껴있는 려사의 땅,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찬란군민의 심장에 깊이 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에 말뚝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 유평혁명사적지!

지난해 6월 13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여있는 창성군의 창평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를후인 6월 15일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 또다시 북부산골의 준평을 넘어 창성에 오시어 송동호연안의 유평혁명사적지를 찾으셨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루 묵으셨던 유평의 농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셨었다.

동창과 창골, 고산진의 추녀앉은 농가들, 옥천의 어두운 기차골과 향하리의 슬픈 강도, 포탄이 작렬하고 탄환이 비발치는 전선길들과 포연이 울날리는 고지들...

전회의 날 것처럼 수수한 민가들과 위대한 전장들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겪으신 찬란로고를 되새겨보시는 듯 이윽도록 농가앞에 서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절절하신 어조로 말씀하셨었다.

《내가 창평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도 말하듯했지만 수령님께서서도 꾸러진 집주실도 아니고 작전탈도 없는 이런 수수하고 추녀앉은 북부산골의 농촌집에서 조국해방전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탁월한 사상과 전법을 창조하셨습니까.》

참으로 유평의 농가는 한평생 특권을 모르시며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그대로이고 겪으신 로고그대로였다.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년대와 년대로 이시며 창성군을 품어입어 찾으셨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이 고장에 새기고개신 거룩한 자욱이 다 그려하지만 전회의 포화속에서 남긴 불멸의 자욱에는 더욱더 로고가 깊다.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지역에 기여든 적들을 격멸소탕하고 전선선에 걸쳐 새로운 결정적인 반공격을 단행할 작전적구상에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창건한지 복지역들에 로기동적으로 전개하셨었다. 그중 한 지역이 바로 창성군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천, 운산, 동창을 거쳐 창성군 읍에 도착하신것은 주제 39(1950)년 10월 26일이였다.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에 유평리에 가시였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집단을 가져다주시고 그우에 허물 없이 앉으셨었다.

이윽고 우동불을 마주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전에 산에서 왜놈들과 싸우던 생각이 난다고 하 시면서 간고하셨던 향일의 나날들을 더듬으셨었다.

찌적찌적 소리를 내며 우동불이 타올랐다. 불길은 활활 솟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입교께서는 웃음 비쳤다.

표연에 그슬리고 색이 바래진 등어 리며 어깨발이, 다스려진 소매흔들... 그것을 보면서 수행원들은 너무도 가슴이 아아 눈물을 머금었다.

다 많은 웃음 입으시오 전회의 길 을 헤치시며 이방에는 한 농민가정 의 단장을 깨우지 않으시려 향일의 그날처럼 우동불가에서 밤을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날의 한 수행원은 후일에 이렇게 회고하였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어쩌 면 위대한 수령님을 그렇게 모실수 있고 새옷 한벌 지어드리지 못한단 말인가? 후대들이 이렇게 우리를 혹할수 있나? 그대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집단을 가져다주시고 그우에 허물 없이 앉으셨었다.

면 좋겠습니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 올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이 전쟁으로 하여 제대로 입 지도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고있는 데 최고사령관이라고 어떻게 새옷을 지어입겠는가. 아직 더 입을 수 없으니 마진데와 구멍이 난 곳을 잘 손질하라고 이르시었다. 그러하여 팔레 새옷 을 지어드리지 못했다고 수령님께서는 전쟁기간 혼술이 다 다스려진 웃으 도 겨울을 나시고 여름도 보내셨었다.

수령님에 도착한 날 우리 수행원들 들은 수령님께서 타시는 균용송유차 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수령님께서 전쟁시기 늘 찬바람과 포연이 스며드는 풍막을 친 균용송유 차를 리용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차로 바꾸어도 되리라고 하여도 수령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었다.

《포연내가 배인 그 균용송유차는 잊 지 못할 1950년 10월의 이런 이야 기도 있었었다.》

어느날 일꾼들이 보통균용송유차 를 타고다니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안일을 보장해드리 려고 새 송유차를 가져왔다. 그대 에 계시었고 새옷을 갖는것을 비롯하 여 자신을 위한 일은 일체 반대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 시고 창성군의 유평, 창평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신 후인 1951년 2월 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집단을 가져다주시고 그우에 허물 없이 앉으셨었다.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에 유평리에 가시였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집단을 가져다주시고 그우에 허물 없이 앉으셨었다.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에 유평리에 가시였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집단을 가져다주시고 그우에 허물 없이 앉으셨었다.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에 유평리에 가시였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에 유평리에 가시였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에 유평리에 가시였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에 유평리에 가시였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집 주위를 깨우지 말고 하자 수령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불발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 하자 유평리에서는 안다 까와 하시는 수행원들에게 밤에 난알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깔아주신다 구구한 날말씀도 말씀수 있고 온기도 불것이라고 하시면서 뽕이 산 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까? 주 좋았다고 하시였습니다.》

편도 자제히 알아보셨었다. 수령님 의 소말하신 인품에 끌려 농민은 어 려움을 잊고 해방전쟁에는 소착함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해방후에 는 장군님은덕으로 6300평의 땅을 부여받아 잘살았는데 말씀드리었다. 그 말에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 하시면서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고 호탕하게 웃으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평의 농가에 머 무르신 시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여느때 와 더불어 집밖에 생활하셨었다.

인민들의 생활이 너그러웠음을 심려 하시며 식사도 검소하게 하셨었다.

수령도 인민의 아들입니다. 인민들 이 잠복밭을 먹을 때는 나도 잠복밭 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잠복밭 의 나날을 잠복밭이나 장병이극수 를 드신 우리 수령님이시기도.

어느날에는 방상을 받으시고도 한들 안 수저를 들지 못하시며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전사들은 밤이나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소. 아마 하루에 한끼 먹고 싸우는 때도 많을것이지요. 그런 데 내가 최고사령관이라고 하여 어떻게 하후에 세계적 먹으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세부터는 점심식사를 그만두시고 아침 저녁이시라.

《그렇듯 마음속에 전사들과 인민 들을 소중히 안고계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평의 농가에 계시는 때 에도 흰쌀밥을 짓거나 색다른 반찬을 만드느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고 농 가를 떠나실 때는 수행원들에게 부엌을 리용하면서 손상을 준것이 없 는가 잘 살펴보고자 거듭 보시였으며 토방에 있는 구마루를 보시고는 날씨가 차지는데 얼지 않게 잘 보관 해주라고 당부하셨던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시고 농가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한지에 계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것처럼 대문밖 에서 밤을 새우시는것을 모르고있 다 가 밤이 흰히 밝아오시며 모르고나 온 집주인은 수령님을 알아보려고 너무도 피스스러워 어쩔말바를 물라하였 다. 그는 이슬에 축축히 젖은 수령님의 옷자락을 더듬으며 눈물을 쏟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농민 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아직 젊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 기 앉아 이야기나 나누자고 오히려 그를 위안하시면서 불결으로 이끄 시었다.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 은분들이 또 어디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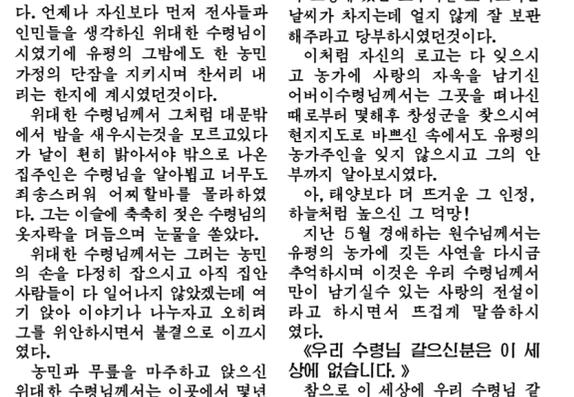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 상에 없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잠에 든 집주인을 위해 수련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신 곳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하는 유평혁명사적지 분사가자 립 학 락 적을



분사가자 립 학 락 적을

## 최후승리를 위한 려사적진군과 4대교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 김정일애국주의교양

당의 선명도따라 승리로 전진해나가는 오늘을 맞이하여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강성변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애국의 총진군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이다. 조국과 인민, 후대판으로 일관된 김정일애국주의아발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우리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애국의 기갈이다.

현시기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빛내이며 오늘의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이다. 또한 국가를 위한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 위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며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조

국의 존엄을 더 높이 떨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당의 의도대로 전제 군대와 인민을 김정일애국주의로 무장시키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갈데로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여기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

### 신념교양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려사는 자기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자기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진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셨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적들과 혁명전승의 전통이든 이든, 자기위업에 대한 신념교양을 높이기 위한 려사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이 투철하고 혁명적신념이 강한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주시었다. 지난 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최후의 역경속에서도 승리를 략관하며

가고있는 오늘의 벽한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교체될수록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바로 사상사업이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가는 혁명의 불꽃을 지킬수 없다면 승리가 이룩한

역세계 싸워올수 있는것은 바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온 당의 혁명적 령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과 수령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일것으로, 만단사연도 역세계 뒤흔어나가는 강한것으로 되게 된다. 그늘지 않는 혁명적신념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지닌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 계급교양

계급교양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다.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려사적교양을 중단없이 밀고나가야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과 사회주의의 본래를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려치도록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지나 약화시키면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

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의 령을 길어다. 사상정치, 계급교양, 사회주의의 덕목과 의무를 배우고, 사회주의의 본래를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려치도록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지나 약화시키면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

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의 령을 길어다. 사상정치, 계급교양, 사회주의의 덕목과 의무를 배우고, 사회주의의 본래를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려치도록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지나 약화시키면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

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의 령을 길어다. 사상정치, 계급교양, 사회주의의 덕목과 의무를 배우고, 사회주의의 본래를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려치도록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지나 약화시키면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

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 혁명적의 사상정세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은 철두철미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학습과 조직생활과 함께 혁명실천은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고려이며 위력한 수단이다. 사람의 사상은 실천을 통하여 공고되고 혁명적실천속에서 더욱 공고화된다.

오늘 우리 당이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함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는것은 바로 전체 인민이 실천투쟁속에서 열렬한 애국자, 참다운 혁명가, 사회주의혁명군 건설의 단장자로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갈데로 하기 위함이다. 사상교양은 철저히 혁명실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창조로 강행군과 단멸속속에 깃든 애국 헌신의 로고를 언제나 가슴에 소중히 새기고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조국의 부강변영에 참가해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비롯하 여 혁명전승기념관과 기념비, 혁명적사업에 대한 신념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누구나 죽어도 혁명적신념을 버리지 않은 신념철벽형 오늘의 총진군을 사상과 신념의 진

취를 강도높이 벌여나간다. 새 세대들의 철학적, 탁발적본성은 철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이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언제나 건장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갈데로 하여야 한다. 평양시민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

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갖추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의덕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를 강화해나가기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게

## 위대성교양을 활발히 벌려

신천군 지남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품모를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당보에 대한 독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카드에서 올려나오는 불타는 맹세이다. 하기에 이들은 오늘도 들끓는 현장에서 생산재대증을 보다 큰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불타일어나기 위한 사상교양을 드세치게 벌려갈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분사가자 전성 남

신천군 지남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품모를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당보에 대한 독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카드에서 올려나오는 불타는 맹세이다. 하기에 이들은 오늘도 들끓는 현장에서 생산재대증을 보다 큰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불타일어나기 위한 사상교양을 드세치게 벌려갈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분사가자 전성 남

신천군 지남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품모를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당보에 대한 독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카드에서 올려나오는 불타는 맹세이다. 하기에 이들은 오늘도 들끓는 현장에서 생산재대증을 보다 큰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불타일어나기 위한 사상교양을 드세치게 벌려갈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분사가자 전성 남

신천군 지남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품모를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 인민사랑의 휘황한 설계도를 현실로 펼쳐가는 전격전의 기상

중 앙 동 물 원 개 건 보 수 공 사 장 에 서

## 백 날, 천 날 맞잡이로 질풍같이

조선인민내무군정창복소속부대군인건설자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에 참가한 주인공들속에는 조선인민내무군정창복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있다.

공사장에 달려온 첫날부터 파급한 공격전을 벌인 이들은 지금도 날마다 혁신의 하루해를 맞고보내며 완공의 날을 마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 하면 산도 뚫을고 바다도 뚫을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국경이르는 곳마다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날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매 단계마다 백두산혁명군인의 기상을 떨치며 위훈을 새겨가는 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 웨치는 힘찬 대답이 있다.

— 우리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이다.

애국의 의지가 함축된 이 말씀에 지난날에 이어 오늘도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답게 새로운시대속도창조의 기수가 되려는 확고한 결심이 깃들여 있다.

부대가 맡은 건설대상들은 일반적인 건물형태가 아니다. 벽면이 통째로 인공바위로 부각되는 동물사들과 라선형제단을 이룬 눈부러 아득한 전망탑이며

둘레가 수백m나 되는 인공못과 다양한 시설물들... 그처럼 공사량이 많고 시공도 어려운 수많은 대상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과제이다. 하지만 부대장병들은 방대한 공사량을 놓고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앞에 유리한 공사조건이 마련되여서가 아니다. 그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론하기 전에 결사관철이라는 절대적인 신념만을 피땀을 흘리며 간직하고있는 부대의 장병들이다. 하기에 이들이 추진하는 공사의 하루하루는 많은 과제를 공경철, 대장별 무조건 드림없이 수행하기 위한 실천력을 검증하는 나날로 자랑스럽게 엮여지고 있다.

드넓은 인공못형성과정엔 어떤 토양처리

와 폭발기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치기는 자연과의 치열한 격전이였다.

내리짜는 피약별과 찌는듯 한 무더위, 기초구간에 갈수록 차오르는 지하수... 공사조건은 어렵고 작업량은 방대해도 부대의 장병들은 모두가 용맹하게 전투에 진입하였다. 밤낮없이 울리는 증기계의 동음, 구리빛얼굴들에 내뿜는 땀을 훔칠새도 없이 때때로 같은 함성을 휘둘러던 병사들에 의해 방대한 인공못굴착공사는 단 48시간만에 추진되었다.

인공못형성을 위한 전투장에서 혁명의 기상이 내뿜는 때 황경국 소속부대가 맡은 건설장에서는 또 어떤 위훈이 창조되었는가.

혼합물을 실은 수송차가 현장에서 미처 도착하지 못할 때 공사장의 습결은 낮아진것이 아니라

더욱 높아졌다. 하나의 공경도 드릴수 없다는 자각이 그들로 하여금 인력에 의한 투입전투에 뛰어들게 하였던것이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하는 부대장병들의 말속에는 언제나 공사수행의 앞장에서 내달리려는 이들의 투철하고도 고상한 정신세계가 비껴있다.

그 어떤 복잡한 시공도 막힘없는 건설의 능수로, 정신력의 강자로 자랑떨치는 부대장병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혁명군대의 지휘관답게 현장을 타고나지 않았지만 장교로 양성된 부대의 장병들은 공사장에서 풀어나가는 리산용, 강은 목동무들과 수시로 제기되는 물동수송을 위해 전신수송결을 달리는 심정으로 조항분을 더욱 열성적으로 돌보아주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콘크리트

기를 호프식으로 추진하는 정상수송부대의 군인건설자들... 당정책위령전에 펼쳐나선 이런 혁신의 기수들에 의해 부대적으로 걸린 고리도 되었던 방수벽과 보온재, 내장재를 비롯한 다량의 건설자재가 확보되어 전반적인 공사는 중단없이 추진되고 어렵게만 보이던 아름다운 공사과제들이 보란듯이 수행되고 있다.

— 모든 공사를 번개같이 불이 번쩍 단숨에!

지금도 이곳 지휘관, 병사들은 공사기일을 오늘을 열흘을, 레일은 백날, 천날을 앞당길 때 당한 목표물에 모든 사색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가까운 시일안에 명공사와 명급사의 대추를 형성하는 어렵고 복잡한 구조물공사에서도 혁명군대의 영웅적기상을 다시금 높이 떨치려는 이들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그들 증명하듯 흐르는 시간개념만으로 계산할수 없는 격동의 나날이 줄기차게 흐른다. 공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해 심장의 피를 끓이려는 결사관철투사들에 의해 건설장의 습결은 더욱 세차게 약동하고 있다.

어머니조국이 걸머진 짐을 자신들의 두어깨로 덜어줄 불같은 자각과 의지를 지닌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통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인민의 행복이 넘쳐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릉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변모되는 중앙동물원의 면적은 100여 헥타르로 확대된다.

드넓은 건설현장 그 어디서나 룡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볼수 있다.

그만큼 이 사업소가 맡은 개건대상은 총건설공사량의 50%를 넘어선다.

방대하고 아름다운 과제이지만 혁신의 앞장에는 언제나 이곳 일군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약같이 뿔쳐일어나 불발을 가리지 않고 기어올라 해내야 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시공을 표준설계의 요구대로! 이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다.

중앙동물원개건전투는 이미 있던 구조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세계적 수준에서 표준화된 설계의 요구에 맞게 구조물을 변경하고 건축면적도 대폭 늘여야 하는 공사이다.

박중훈, 서평명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건설시공을 표준설계의 요구대로 해나가자면 모든 직장에 강철같은 규율을 확립하고 건설지의 깨끗한 청소를 바쳐야 한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고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 있다.

사업소의 전투현장에서는 실적총화에 앞서 표준설계의 요구

대로 시공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엄격히 총화되곤 한다. 어느 한 동물사에 대한 개건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들어서던 일군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건축물의 형태는 잡혔지만 일부 요소들은 표준설계의 요구대로 원만히 시공되지 못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두발을 걸어올려 고 건설자들과 함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갔다.

이처럼 일군들은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공사를 철저히 표준설계의 요구대로 해나가며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만난 이곳 일군들은 당부하였다.

3개 호동의 우아하고 이채로운 건물들을 하나로 편견 없는 앙무바탕판이라고 일컬을만큼 큰 규모의 앙무판을 표준설계의 요구대로 시공해나가는 차용철동무를 비롯한 11 직장의 건설자들이 15 직장, 5 직장, 18 직장 건설자들의 건설성파를 널리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손을 뜨겁게 잡는것이였다.

우리는 일군들의 이야기와 건설자들의 위훈에 한 투쟁모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앙동물원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손색없이 일떠세우려는 뜨거운 마음들을 새겨안게 되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사색도 실천도 우리 식으로

경정속에 담보되는 질적이고 절실한것이다.

이것은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내세우고있는 실천의 기준이다.

공사장에서는 지금 시공단위별 사회적경쟁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미상한 공사속도창조를 위한 경쟁과 함께 건설물의 질적고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이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것은 시공단위별로 매 공정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질적사과점이다.

완성된 미장면과 철근배치 및 조립, 용접상태를 포함한 모든 공정수행에 대한 질적사과 점적지휘부와 감독일군들의 참가밑에 어렵게 진행되고있다.

검사과정에선 초음파검사설비를 비롯한 기계들도 효과있게 리용된다.

한해 공정이 끝나면 반드시 건설물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공정으로 넘어가는 질적사과 점적체계를 확립하여 건설물의 질은 그만큼 높은 수준에서 담보되고 질적은 원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나라에 주는 보탬은 또 얼마나 클것인가.

건설물의 질적고급과 관련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는 공사에 참

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의 마음을 읽는다.

항목이 바뀌어진 사연

얼마전 건설장을 찾았던 우리는 한가지 사실에 주목을 돌려왔다.

현장지휘부에서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마감전체의 리용항목이였다.

알고보니 맹수와 원숭이판을 비롯한 여러 동물사들의 마감공사에 국내산 견재와 운열설비를 적지 않게 리용하게 되어 있었다.

강질유리와 외장재, 철강류와... 그리고 각종 건구와 뿔프들... 건설장에서 이렇듯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의 리용항목이 늘어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견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때 대한 당의 요구를 높이 받들고 마감전체가 생산되는 단위들에 달려가 필요한 건설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그 과정에 해당 부문 과학자들의 창조적협조속에 수입하게 되어있었던 마감전체의 항목은 적지 않게 바뀌어졌다.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자는 마음, 당정책을 결사옹위,

경사관철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결실이다.

환경이 깨끗한 공사장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는 놀랄만한 먼지가 없다.

청신한 공기가 흐르는 동물원의 아담한 구내는 공사가 한창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이들의 얼굴에 비친 밝은 웃음이 인상깊게 안겨온다. 꽃차, 판차차라 타고 쉿쉿 달려기도 하고 꼬끼리사, 원숭이판을 비롯한 동물사들에서 아이들은 웃음을 한껏 터뜨린다.

바로 여기에도 인민들의 편의를 늘려주신, 절대하시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가 비껴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사지휘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건설속도를 높이면서도 동물원을 찾는 근로자들과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아침저녁으로 물차들이 오가며 구내의 도로를 적시고있다.

동물원의 생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건설을 다그치는 건설자들의 노력은 드넓은 전투장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 웃음과 희열이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며

중앙동물원개건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대상건축의 드넓은 부지에 자리잡은 중앙동물원의 모습은 그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되었는가.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원만한 체모를 갖추며 완성되는 원숭이판과 쉿쉿판, 판차차를 비롯한 동물사들과 못나무로 형성되어 이채롭게 뿔어나간

울라리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한층의 혼합물을 다지고 한mm의 건축부각장식을 진행하여도 인민들의 즐거움 유실장소 없게끔 후날에 가서도 아무런 손색이 없게 완성하기 위해 보란만한 창조적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간다.

그들속에는 만수대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미술창작 및 교육단위들에서 달려나온 미려한 창작가, 미술가들도 있다.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하늘같은 사랑과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날김없이 발휘하는 군인들과 건설자들, 창작가들의 애국의 마음을 떠받들러 품치수려한 대상산기슭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 현지보도 남극이 보인다

여기는 완공을 눈앞에 둔 중앙동물원 펭귄새관건설현장이다.

지금 이곳 현장에서는 조선인민내무군정창복소속부대 전투원들이 창조와 혁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에 의하여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리용되고있는 펭귄새관건설은 남극대형상부분에 대한 세부설계로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을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영기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맑은 일에 열중하던 조영환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펭

구새관의 관람홀로 들어섰다.

관람홀의 앞쪽에서 마주보이는것이 남극펭귄새관이고 우측은 아열대펭귄새관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림문섭, 김동호, 김광수, 림성혁동무들이 붓꽃을 진장하게 모으기도 하고 제치있게 날리기도 하면서 세상에 내놓고 소리쳐도 손색이 없을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을 완성하느라 성실한 땀을 바쳐간다.

이들의 작업위치는 물속에서 놀던 펭귄새들이 터라라린 얼음장을 뜯아올라 쌍을 이루며 다정히 속삭인 휴식터의 배경면이다.

— 형성도안과 차이나는 젊은 무엇이며 어느 부분에 더 힘을 넣어야 극지대의 형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는가. 합의 이루어진 순간이면 어느 그들의 손에서는 실려가나 되는 붓대들이 차례로 바뀌어지며 극지대의 전경이 더더욱 섬세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향상된다.

조영환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림문섭, 김동호동무를 비롯하여 이곳 현장에서 창작전투를 벌리는 동무들은 룡라곰들이며, 유류야동병원건설전투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창조적지혜를 날김없이 발휘한 제능있는 동무들입니다. 이제 남은 이틀동안에 남극펭귄새관의 보금자리를 완성하자라는것이 우리들이 내세운 전투목표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48시간! 분과 초가 조개여진다. 모두가 집체적지혜를 합쳐간다.

벽면에서는 붓대들이 부단히 움직인다. 남극이 보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펭귄새관건설에 펼쳐나선 이곳 전투원들은 줄기찬 창작전투를 벌린다.

창조적열정의 분과 초가 흐르는 속에 남극과 아열대지방의 펭귄새들이 대륙과 대륙을 넘어 여기 중앙동물원으로 옮겨와 보금자리를 쉿 그날이 앞당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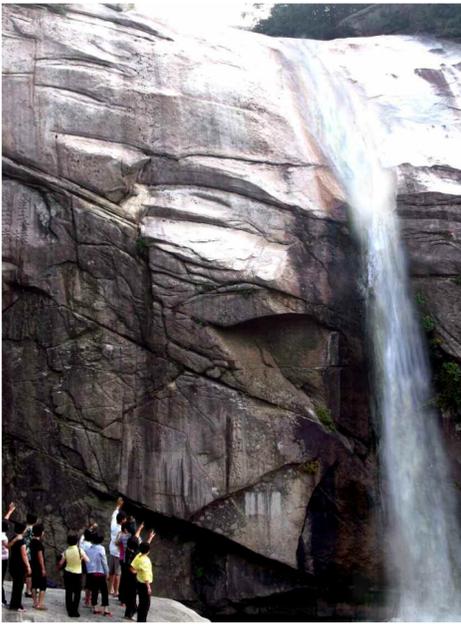
# 하늘의 은하수에 비기랴, 사랑의 해빛안고 행복의 무지개 피여난다

20리짜리 물이 합쳐져 쏟아진다. 박연폭포의 장대한 울림에 한여름의 더위로 달아올랐던 우리의 가슴이 순간에 쉼 없이 열리는 것만 같았다. 에로부터 우리 나라 3대명목의 하나로, 《송도3절》의 하나로 유명했던 박연폭포! 역사를 길거니와 경치도 뛰어난 박연폭포를 찾아 떠난 우리

의 걸음이 드디어 그 기슭에 닿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는 명승고적도 많고 이름난 휴양지도 많습니다. 이를

수림속으로 뻗은 탐승도로를 따라 명승지로 향하느라 힘겨운 줄을 보았던 글썫들이 웃음이 떠올랐다.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 개성은 소나무가 무성한 송악산을 끼고있다고 하여 송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다. 《송도3절》은 바로 개성의 뛰어난 자연적 아름다움을 시경, 왕정이를 넘어서 두루 잘 알고 노래 잘 부르는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명승지로 알려진 왕정이가 쓴 시도 여기 박연폭포명승지의 통바위에 새겨져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은 두렵게 걸린 력사의 이기를 헤치고 그 어떤 심연으로 들어서는 듯 한 심정이었다. 무성한 숲과 기암괴석에 가려워 하들도 보이지 않음처럼 드디어 석기산과 천마산이 서로 손을 맞잡듯 마주하고있던 화강암절벽이 나타났다.

산봉우리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 그 물줄기가 흘러내리면서 마치 천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듯 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는 것이 박연폭포였다. 박연 폭포는 천마산과 천마산 사이에서 흐르는 여러 물줄기의 물이 내려오면서 합쳐진 것이 박연폭포였다. 바위가 높고 험준하다 보니 그 모양이 참 신묘하였다. 성기산과 천마산 사이에 흐르는 여러 물줄기의 물이 내려오면서 마치 천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듯 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는 것이 박연폭포였다. 박연 폭포는 천마산과 천마산 사이에서 흐르는 여러 물줄기의 물이 내려오면서 합쳐진 것이 박연폭포였다.



바위위에 황진이가 쓴 유명한 한시가 새겨져있다고 하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시의 뜻을 풀이해 주시어 오랜 세월 해설없이 문득이 글썫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력사의 그날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력사학자들도 함께 읽지 못할 정도로 바위우의 시는 력의 생략과 결점이 심한 초서체로 쓰여져있었다. 바로 그편지를 우리 수령님께서 80고령의 몸으로 이곳에 오시어 지평으로 한글자한글자 짚어 가시며 읽어주시었다. 그리시고는 황진이 쓴 글이 나오게 사전을 켜고 하시며 뜻깊은 화폭을 남기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박연폭포를 찾아 주셨던 위대한 장군님에서도 옛날 령방들은 아찔한 절벽에 자기 이름이나 새겨지던 황진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 훌륭한 시를 새겼다고 하시면서 초야에 물결이던 그의 생을 력사의 길에 두

어려주시었다고 한다. 그 옛날 령방사대부들 보란듯이 폭포수에 젖은 머리채를 먹어 찍어 바위에 유명한 시구절을 새겼다는 황진이께서 장상에 다시 태어나 이 가슴뜨거운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심정이 과연 어떠랴.

정말 이렇기야말로 민족의 력사를 귀중히 여기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만 꽃필수 있는 또 하나의 뜻깊은 전설이 아니라.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통바위에 올라 박연폭포를 바라보았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안개 물이 사름쳐흐를 정도로 아찔이면 폭포주변에 물안개가 피어 무지개가 선다니 물소리 물안개 은은 우리가치고 물방울 하늘에 구슬이 흩어지네라는 시구절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들끓는 화살은 없어도 들끓는 락수는 있다고 폭포수에 의해서 생긴 고모담의 깊은 물은 어찌나 맑은지 손을 담그면 금시 새파랗게 물들었다 하였다. 박연폭포 오른쪽에 안개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하여 법사정이라고 불리우는 정자가 서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 폭포를 부감하는 듯 또한 아름다웠다.

서있는데 있었다. 마담폭포, 대홍폭포, 계절폭포 등 제 나름의 자태를 뽐내는 폭포들도 정말 많았다. 우리는 먹먹먹 눈에 뜨이는 폭포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박연폭포에서 1000m가량 떨어진 관음사로 향하였다.

통바위다. 관음사터리를 지나 어느 한 곳에 이르니 수백년 자란 은행나무가 문주마냥 높이 서있었다. 관음사에도 아버지수령님의 발자취가 새겨져있었다. 몸소 박우물의 물맛도 보시고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도 헤아리시던 문화유산들을 더 잘 보존관리할데 대해 가르쳐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어려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령 박연폭포명승지의 그 어느 고적도 그 어느 담소, 그 어느 고적도 그 어느 나라와 인민위대한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천하정승으로 자랑높은 박연폭포의 진정한 시원이야말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의 품이라는 목마치는 격정을 안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박연폭포! 인민위대한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세세년전 전하며 더욱 출기치게 쓰시게라. 지평을 팽팡 울리며, 만복의 주인공인 인민의 행복 노래하며 하늘땅 끝까지 장쾌한 그 메아리 울려가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옥경 조 함 III

##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동포사회에 환희의 웃음꽃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동포들은 그 어디에서 살건 자기 민족의 넋을 잃지 말고 민족성을 지키며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 효고현에는 《환희》라는 이름을 단 조선무용교실이 있다. 그 명칭에는 아름다운 조선무용을 통해 우리 민족문화의 찬란한 빛을 일본땅에 뿌려나가고 동포들의 가슴마다 민족적 긍지와 환희를 안겨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운영자는 총련 금강산가극단 무용배우 출신인 송정애녀성이다. 지역안의 우리 학교 초, 중, 고급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희》는 학생들이 학교무용소조활동을 통하여 배운것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높은 기량을 쌓도록 도와주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연간 체육활동에서 오사까지의 동포들이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크다. 지난해에만 놓고보아도 총련 오사까지선고급학교 투구부 선수들이 일본 전국고등학교선발투구대회에 출전하여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3강팀에 들어섰다. 이어 총련 오사까지선고급학교 권투선수 리진태청년이 일본에서 고등학교학생으로서의 여섯번째로 전일본본진 경기대에 6번승을 하여 동포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는 또한 62승, 무패의 성적으로 일본야마츠허리투구부에도 수필하였다. 지난해 8월에는 진행된 일본 전국고등학교 권투경기대회에서 총련 오사까지선고급학교는 일본전국의 고등학교팀들과 겨룬 2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사까지동포사회에 체육활동을 통해 민족의 기개를 떨치려는 기운이 더욱 높아가는 가운데 얼마전 일본프로권투 투구부 챔피언 이규 왕자인 박태일선수와 전일본본진 경기대에서 6개의 금메달을 딴 리진태선수에 공화국 체육명수종과 기념메달이 수여되었다. 또한 권리마투구단 주장과 동아시아가라데선수대회에서 동메달을 받은 오사까지선고급학교 학생이 오사까지체육협회 우수선수에 수여되었다. 머지않아 체력은 결성 70승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맞으며 오사까지체육협회의 전체 일꾼들과 체육인들은 총련의 체육활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민족의 향취 흥겨운 장단에 담아 -총련 금강산가극단에서-  
다음주에 진행될 전승컴퓨터경기대회 여러 종목(1급, 청소년급)의 경기들  
수상성, 월봉산, 봉산산체육단과 중앙체육학원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물에뛰어들이경기  
한련 수구경기(1급, 청소년급)가 24일부터 은룡군 수영장에서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기개 더 높이 떨치리  
제일본조선인체육협회(제 60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동포, 학생이 어릴때부터 마라톤대회, 40년간 어느 한해도 중단된적 없는 스포츠보통경기대회는 이 협회의 상징이나 같다. 제일본조선인투구선수대회와 배구선수대회에서 2련승을 쟁취한 남자팀도 그렇고 전일본본진 경기대회에서 4강에 진출한 여자팀도 그렇고 오사까지체육협회의 전제 일꾼들과 체육인들은 총련의 체육활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식품물방부제와 건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식품가공공업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식품을 공업적방법으로 제때에 가공하며 식품가공에서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식품은 생산 및 취급과정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오염, 부패, 변질될 수 있다. 식품의 변질은 각종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인자의 작용으로 자체의 고유한 성분, 감각적성질 그리고 영양가치 변화된 상태이며 식품의 부패는 주로 미생물(각종 세균과 곰팡이, 효모 등)의 작용으로 심하게 변질된 상태이다. 식품의 부패변질과정은 단백질, 기름질, 탄수화물의 분해 및 변화과정이며 여기서는 기본은 단백질의 부패와 기름의 산화이다. 식품공업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방부제를 사용하고있다. 식품물방부제는 식품의 부패, 발효 및 그밖의 변질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식품에 넣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물방부제에는 안식향산과 그 염, 소르빈산과 그 염, 이산화황, 프로피온산과 그 염, 살리실산과 그 염, 개미산과 그 염, 테트라초산과 그 염, 불소화합물 등이 있다. 이 방부제들은 미생물세포의 구조적성분이나 물질대사를 파괴하여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식품물방부제는 식품의 부패변질을 방지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사람에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 식품물방부제의 개발과 이용에서는 그에 대한 위생학적 및 중독학적평가사업이 병행되었으며 방부제에 대한 규제 및 단속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동물에게 소르빈산과 그 염을 섞은 먹이를 넉달동안 먹였는데 성장발육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2mg씩 한주에 두번 60주 주사하였더니 그 부위에 암이 생겼다고 한다. 이밖에도 여러 방부제들을 실험동물에게 주입한데 의하면 중독증상이 일어나거나 물질량이 늘어나지 못하였으며 여러 장기에 피사를 일으키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 우리 나라들에서는 살리실산과 그 염, 개미산과 그 염 등과 같은 방부제들의 사용을 금지하고있다. 식품물방부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에 따르는 위생학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는 독성이 없고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 속하는 천연물질을 방부제로 쓰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의학과학원 환경위생연구소 박사 부교수 류준명

스위스 이팔리아어지역공산당대표단 도착  
알레산드로 루치니 정치부비서들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이팔리아어지역공산당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 -중구역공민관리소 대동문공원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우리 인민의 옷무늬장식력사는 원시시대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고대에 옷이 무늬를 형성하는 기술이 일정한 수준에 있었다. 세나라시대에 와서는 옷무늬를 형성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발전하였다. 옷감에 염색하는 방법, 직질 그림을 그려서나 금박, 은박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옷에 수를 놓는 방법

조선훈강장조시에 옷무늬에는 단순한 무늬들이 적어지고 고대인 모란꽃, 매화꽃, 살구꽃, 라지꽃, 연꽃을 비롯한 여러가지 꽃무늬들과 포도넝쿨 등 여러가지 덩굴무늬, 단풍잎, 풀잎, 소나무가지, 참깨와 같은 식물무늬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무늬소재는 더욱 다양해졌는데 물고기, 나비, 사슴, 학, 거북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동물을 형상화한 무늬와 구름, 해, 바위무늬 등 종류는 헤아릴수 없이 늘었다. 이 시기에 북을 누르며 오래 잘살기를 염원하는 글자무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흔히 보게 되는 꽃을 형상화한 무늬가 보급되어 옷무늬가 점차 정교해졌다. 옷무늬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것은 이 시기 사람들의 미적취미와 안목, 형성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있었다. 옷에 무늬를 형성하는 방법들은 주로 옷감의 재료에 따라 무

##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의 우수성(3)

도 발전하여 색색뿐만아니라 금실과 은실을 가지고 수놓는 기술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 옷무늬들은 신분과 계층에 따라 차이를 두고있었다. 이 시기 옷무늬에서 특징적인것은 옷바탕색과 무늬색을 두드러지게 대조시키면서 서로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여 조화시켰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에 와서 옷감에 무늬를 놓는 기술은 한층 더 발전하였는데 여러가지 꽃, 나무잎과 같은 식물무늬와 개치 등 동물무늬가 있었고 해와 달을 형상화한 무늬들도 있었다.

명파 비단천에는 무늬를 직접 수놓는 방법에도 하였고 베, 모시 등 비교적 성글게 짠 옷감에는 대체로 무늬를 놓지 않고 그대로 리용하는것이 일반적관습이었다. 지난 시기 조선치마저고리의 무늬들은 연하고 맑으면서도 가볍고 은근하고 맑은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식물무늬들을 우리 나라의것으로 형성한것으로 하여 옷이 친근감과 민족적정서를 절제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옷무늬들은 인민들의 미적기호와 취미, 현대적미감에 맞게 율계 계승발전되고있으며 보다 새로운 무늬를 창조하여 조선치마저고리를 더욱 발전완성시키고 있다. 수천수만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각종 새들, 열매들, 인상깊은 풍경들, 작은것으로부터 거창한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조선치마저고리의 무늬장식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평양미술대학 공예미술가 교수 박사 리유미



인민의 문화휴식터 만경대물놀이장에 행복의 웃음 넘쳐난다. 본사기자 찍음

# 대세에 역행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기의 심보사납고 흉악한 속심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침략의 대명사로 악명높은 미제 7함대소속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남조선에 나타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 3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키드》호전대도 동해항에 입항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의 심각한 우려를 저어내고 있다. 알릴진바와 같이 최근 우리 공화국은 악화된 북남관계 개선을 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보장을 위하여 일년으로부터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공화국정부서명 등을 통해 남조선당국에 동쪽측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대결적 적대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의를 하였다.

바로 이런 때에 미국은 핵항공모함을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이것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고의적인 평화교착행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핵항공모함격침단의 남조선인합과 관련한 내외의 비난 여론에 직면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지 워싱턴》호의 부인인합이 《인도주의적문제와 관련》

다느니, 이번 훈련은 군사적전술훈련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수색주요훈련》이라고 하니 하고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10여발의 핵탄과 신형정투기들인 《A-18EF》, 《A-18AC》와 조경보기 등 70대의 비행기들을 적재하고 여러척의 군함들을 거느리고 있는 10만급의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조지 워싱턴》호가 체포를 어울리지 않게 한강 구조련관같은나 참가한 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항공모함은 명백히 침략전쟁을 위한 공격수단이다. 력사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나라는 곳에서는 레외없이 지역의 정세가 긴장되고 극단적 경우 전쟁이 일어났다. 주축을 끄는 것은 최근년간 《조지 워싱턴》호의 조선반도출입이 매우 잦은 것을 볼어 이 핵항공모함격침단을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 투입하여 광범위한 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지난해만 보아도 3월과 4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벌여놓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수많은 침략무력과 함께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여 전쟁연습의 도발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드러냈다. 지난해 10월에는 그 무는 《북핵대응》을 명분으로 《조

지 워싱턴》호를 조선동해와 남해를 거쳐 최대열점지역인 조선 서해에까지 진입시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맞춤형억제전략》의 실효성검증과 보충완성을 기도하며 미친듯이 돌아왔다.

현실은 이번엔 미핵항공모함이 이 도사리 남조선에 나타난것이 그 무는 《인도주의》나 《수색구조》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목적은 다름아닌 북침핵전쟁도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조지 워싱턴》호격침단과 이지스구축함 《키드》호전대는 16일부터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파괴해군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해상훈련을 개시하였다. 22일부터는 일본해군함정들까지 끌어들이며 제주도근해에서 력순 구 규모의 해상항공훈련을 강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북남공격작전능력을 숙달완성하며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을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며 전쟁발상단을 벌려놓는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또다시 제동을 거는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우기 미국이 외세를 배경하고 우리 민족주의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을 군사적도발로 헤치는데 대해 우리 인민들은 치자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야망에 의하여 북남사이에서 적국 뒤어드는 등으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침략적인 외세를 우리 강토에 끌어들이는것을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의 북침전쟁공조가 아니라 동족과의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에 평화라고 안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적대행위의 책동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지위적국방벽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침략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의지도 천배백배로 강해져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 평화파괴자들의 파렴치한 시비질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미사일발사훈련과 핵무력강화에 대해 이러저러러 공격 시비질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함께 핵공화국공조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그 무는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훈련과 관련한 국제적인 제재강화를 위협하는 자들의 위협천만한 용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확에 안보실정 김관전역도 그 내뱉은 말발은 미사일도발을 하는자들이 과연 주위인간에 대한 명백한 고발로 된다.

얼마전 《국회》에 나타난 자는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의 남조선반입이 북의 미사일에 대한 대비능력을 향상시킬것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위험한 시도를 극구 환영해나섰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장비인 《THAAD》의 남조선반입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북핵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공모격렬한 산물이다. 미국은 지난 6월 《THAAD》의 남조선반입을 정식 결정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것을 구입할 생각이 없다느니 뭐니 하고 안보보살같이 자만 자부속의 승풍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일정한 시일이 지난 뒤 미국이 끌어들이는 《THAAD》를 남조선당국이 사용할 것이라는것이 언론들의 평이다. 지금껏 피뢰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배비된 각종

##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미국은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은 우리 군대와 밀앞에 무릎 꿇고 항복사를 바쳤다. 이로 하여 미국의 이른바 《공대성의 신화》는 깨져지고 내리막길의 시초가 열렸다.

미국의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쟁도발용도를 감추지 않고 《조선전쟁완결원칙의 해》로 지칭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은 국방정책위에 《조선전쟁정지판결지 차르발한다》. 그러면서 조선전쟁을 그 무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얻은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모략남조선전쟁을 벌여 오려오다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

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미국은 언제 한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린적이 없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조선전쟁을 남조선강점미군의 선제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피뢰들과 끊임없는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연합공격작전태세에 단호한 해상기동 및 항공기요격훈련을 판관적으로 벌려놓았다. 22일부터는 일본《자유대》 해군전선들까지 끌어들이며 제주도근해에서 대규모적인 해상항공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대한 미핵항공모함의 투입은 매우 수상치 않은 사태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긴장을 격화시켜 핵전쟁의 불길을 한사코 터뜨리려 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인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를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위협하면서 핵전쟁 발발위기를 조성하고있다.

늘어치고 남조선반도에 전쟁

침을 위한 미국과의 군사적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뢰들이 이 회의에서 그 누구의 미사일발사 훈련에 참가하고 선제타격하기 위한 《킬체인》과 남조선형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상전과 합의한것도 그들이 미국과의 공조필에 북침전쟁공격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확에 안보실정 김관전역도 그 내뱉은 말발은 미사일도발을 하는자들이 과연 주위인간에 대한 명백한 고발로 된다.

얼마전 《국회》에 나타난 자는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의 남조선반입이 북의 미사일에 대한 대비능력을 향상시킬것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위험한 시도를 극구 환영해나섰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장비인 《THAAD》의 남조선반입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북핵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공모격렬한 산물이다. 미국은 지난 6월 《THAAD》의 남조선반입을 정식 결정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것을 구입할 생각이 없다느니 뭐니 하고 안보보살같이 자만 자부속의 승풍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일정한 시일이 지난 뒤 미국이 끌어들이는 《THAAD》를 남조선당국이 사용할 것이라는것이 언론들의 평이다. 지금껏 피뢰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배비된 각종

무장장비들을 그런 식으로 사들여 실진배비하였다. 《메트릭트》요격미사일은 그 한 실례이다.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므로써 피뢰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에 적극 참가하여 북침전쟁공격체제를 완성하려는 자들의 위험천만한 용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남조선군부호전장관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발상단소등도 변질내도 벌리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16일부터 미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하여 미해군의 순양함 2척, 이지스함 1척이 참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조선동해에서도 미국과 피뢰들의 연합해상훈련이 강행했다.

사실들은 내외호전장관들의 그런 《북의 도발과 위협》타령이 곧 저들의 위험한 군사적도발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파렴치한 꾀미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핵항공모함을 투입한 연합해상훈련을 비롯하여 저들이 할것은 다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와 미사일발사를 결코 늦추는것은 도적이 바를 수 없는 법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결코 그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소동부터 견제치 않아야 한다.

본사기자 장윤남

## 호전적인 핵전쟁연습책동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16일 호전장관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관군에게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핵항공모함의 진입 그자체가 적대군사연습으로 볼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일본과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울의 광화문주변에서 178차 주주연명평화행동을 가졌다. 단체는 미국이 《조지 워싱턴》호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고고도요격미사일을 조선반도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그것

이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것》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하라고 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미국까지 끌어들이며 항해자 형태로 체결하려 하고있고 있다.

이것은 리명대 《정부가 시비 밀리러 강행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취소된 일본과의 군사협정중결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가》가 협정체결당사자를 3자로 늘이고 체결행위를 바꾸며 국민의 감시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3각 군사동맹을 위한 미국미사일방위체계 가일체 통과 미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승의 축포를 장태하

개 싸움이라야 만세의 합성을 터치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61번째 년들이 새겨지고 있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침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안찰한 흥심밀미 남조선호전장관들을 부추겨 도발한 결과 야만적인 침략전쟁이었다. 하지만 도발자들에게 차츰전도는 수치스러운 참패의 축포였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참패에서 웅당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쟁도발책의 책임을 한사코 남조선당국에게 돌리고 있다. 《정부가》가 협정체결당사자를 3자로 늘이고 체결행위를 바꾸며 국민의 감시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미국은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은 우리 군대와 밀앞에 무릎 꿇고 항복사를 바쳤다. 이로 하여 미국의 이른바 《공대성의 신화》는 깨져지고 내리막길의 시초가 열렸다.

미국의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쟁도발용도를 감추지 않고 《조선전쟁완결원칙의 해》로 지칭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은 국방정책위에 《조선전쟁정지판결지 차르발한다》. 그러면서 조선전쟁을 그 무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얻은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모략남조선전쟁을 벌여 오려오다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

##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미국은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은 우리 군대와 밀앞에 무릎 꿇고 항복사를 바쳤다. 이로 하여 미국의 이른바 《공대성의 신화》는 깨져지고 내리막길의 시초가 열렸다.

미국의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쟁도발용도를 감추지 않고 《조선전쟁완결원칙의 해》로 지칭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은 국방정책위에 《조선전쟁정지판결지 차르발한다》. 그러면서 조선전쟁을 그 무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얻은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모략남조선전쟁을 벌여 오려오다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

##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미국은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은 우리 군대와 밀앞에 무릎 꿇고 항복사를 바쳤다. 이로 하여 미국의 이른바 《공대성의 신화》는 깨져지고 내리막길의 시초가 열렸다.

미국의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쟁도발용도를 감추지 않고 《조선전쟁완결원칙의 해》로 지칭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은 국방정책위에 《조선전쟁정지판결지 차르발한다》. 그러면서 조선전쟁을 그 무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얻은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모략남조선전쟁을 벌여 오려오다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

##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미국은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은 우리 군대와 밀앞에 무릎 꿇고 항복사를 바쳤다. 이로 하여 미국의 이른바 《공대성의 신화》는 깨져지고 내리막길의 시초가 열렸다.

미국의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쟁도발용도를 감추지 않고 《조선전쟁완결원칙의 해》로 지칭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은 국방정책위에 《조선전쟁정지판결지 차르발한다》. 그러면서 조선전쟁을 그 무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얻은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모략남조선전쟁을 벌여 오려오다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

# 남조선당국은 회담결렬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담화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동위원회와 남측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사이의 실무회담이 남조선당국의 비합리한 판관책동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협정도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우리 보도를 통하여 사태의 진상이 드러나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은 이번 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이 벗어났다고 오리 동일부와 회담관계자들, 보수언론들과 전문가 지어 《탈북자》나부임이들까지 내세워 이들은 국제판례의 원칙을 강조했음뿐이러나, 세부내용을 확인해볼수 없었던것이었다느니 하고 변명하는가 하면 마치도 비용문제때문에 회담이 파탄된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남측이 거부하지않아 사실을 위하여 파렴치한 모략소동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 회담의 전과책을 다시금 국제적으로 정화해 밝힌다.

남측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던 현상항에 있는 《만경봉-92》호를 인연항에 정박시켜놓고 자체로 숙식하는것으로 할때 대해 제안하였다.

회담에 나온 남측성원들은 우리의 안이 많이 연구되고 성의를 보였다고 하면서 연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편의보장을 위해 최대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저들이 부담시키는 공동인식, 공동응원, 유일팀구성같은 문제들을 우리측이 일체 언급하지 않는데 대해 동호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립장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남측대표들은 우리측 설명을 꼬박꼬박 듣면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오면 환대해줄것이라느니, 《만경봉-92》호의 제주해협통과와 인천형성박도 잘 보장하는 방정에서 당국과 협의해보았다는 것,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전례가 있는것만큼 그에 따라 하면 북이 제기한 문제들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남측의 이러한 협조적인 자세로 하여 오전회의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오후부터 생겼다. 우리측은 오후회담을 2시에 시작하게 되었고 관련하여 시간을 맞추어 회담장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남측이 서울지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시간, 두시간이 되어도 남측에서 대답이 없었다. 우리측이 거듭 촉박을 했지만 남측은 서울에서 지령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지체시켰다. 결국 2시간 15분이나 늦어서 오후회담이 시작되었는데 회담장에 나타난 남측대표들은 모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그 정상이 말이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무례무도하게 수석대표이하 직원 일제히 덤벼들면서 항함하듯 《국제판례》, 《대회규정》이니 하면서 우리의 제안을 밀어놓고 시비해나섰다.

남측은 저들이 오전에 한 말을 다 뒤집고 우리 제안을 조목조목 거들면서 선수단, 응원단과 관련한 것은 너 무 맞다느니, 북에만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이 의견을 가진다느니 뭐니 하고 트집을 걸었다는 하면 국기문제와 관련한 것은 《국인정서》와 《선민안전보장》을 구실로 내뱉고 공화국기와 통일기를 드는것은 《바람처럼》이다. 《느니, 《규정이 크지는 안된다.》느니, 《통일기를 들어야 할 의미를 설명해달라.》느니 뭐니 하고 도발적으로 나왔다.

남측은 우리가 이번언급도 하지 않았을 비용문제를 꺼내들고 《서부담원칙》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참을수 없이 중상모욕하였다.

못 가보고 30분도 안되어 중단되었으므로 회담은 끝내 결렬되고말았다.

모든것을 보면 오전회의가 끝난 후 남측대표들이 청와대로부터 북측의 제안이 풀려가지 않고 모두 뒤집어질어하는 지령을 단번히 받은것이 분명하였다.

남측대표들이 청와대로부터 일단이 되게 당할것을 받았는지 우리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피칭한 후에도 빈방에서 저를기리 마이에 하고 청와대측으로 가는 식으로 《국제판례》, 《책임》이니 하고 목청을 높이며는 해괴망측한 수태를 연출하였다.

그 물골을 보고 우리 대표단 성원들은 실수로 금할수 없었다.

지금까지 북과 남사이에서 수많은 회담들이 진행되어왔으나 이번처럼 남측이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다르고 청와대가 무지막하게 내리덕어 체육실무회담을 시작도 변하지 못한채 결렬에 그쳐버렸음은 일찌기 없었다.

이번 실무회담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이 《선뢰》로 뭐요 하는것이 완전히 가짜이며 대화도 관계개선도 할 생각이 표출만지고 없었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

###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규탄

이란공화국의 210명이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어내어 수많은 가자지대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성명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만행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비호에 감행되고 있다고 깐박했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자들을 전범죄로 엄격히 처벌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탈공화국의 210명이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어내어 수많은 가자지대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성명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만행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비호에 감행되고 있다고 깐박했다.

성명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만행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비호에 감행되고 있다고 깐박했다.

성명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만행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비호에 감행되고 있다고 깐박했다.

성명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만행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비호에 감행되고 있다고 깐박했다.